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와 함께하는 서울 청년시민 정책간담회 성료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4.7 재보선거획단이 주최한 서울시장 경선후보 청년시민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선, 이상호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을 제안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사회자,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 발제자를 제외하고, ZOOM과 YouTube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모두발언에서 박영선 예비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청년들이 겪는 취업난, 일자리 문제와 여성의 삶과 육아·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4.5일제를 확립시키고 싶다.” 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층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더불어 고립, 안전, 젠더, 환경문제 등을 청년들과 함께 해결해나 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상호 예비후보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끊임 없는 관심과 파트너십 형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서울시장이 되면, 청년분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듣고, 창조적인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또한, “1년 2개월이라는 임기는 많은 일을 하기에는 짧은 시간” 이라며, “다만,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주거와 일자리 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박영선, 이상호 예비후보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마음건강, △일자리, △소상공인,

△노동인권, △주거복지, △젠더, △기후·환경, △코로나19 특별대책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한솔 이사는 코로나19로 심화되는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취업이 늦어지고, 월세 부담이 늘어나는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성평등분과 이누리 활동가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상 속 차별과 이중 격차 해소를 위한 확고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했다.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 이외에도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한 23개 자치구 참여기구 활동가의 발언과 기초단위에서 청년들이 거버넌스 경험을 통해 만드는 작은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울시 자치구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협의회 차해영 간사는 “다양한 세대와 함께 청년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공존에 대한 감각’이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가 행정동-자치구-광역시-중앙정부 곳곳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젊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기반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김지선 운영위원장은 “민선시장 없는 7개월의 공백과 소외”를 밝혔으며,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강다연 활동가는 “숨쉬는 서울을 위해 기후위기 문제를 총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후부시장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어 용산구 전통시장 이세원 청년상인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판매채널을 개설하고, 우체국 쇼핑과 협약을 통해 온라인 입점에 기회 제공 및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인하해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이 “아르바이트자리 마저 잃은 청년들을 위한 긴급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청년인정협동조합 홍수현 이사장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문제를 언급하며, “지역별 생활형 활력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공동체가 청년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촘촘한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주거상담국장은 “이미 주거불안을 겪는 청년세대가 코로나19로 더 큰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청년들의 제안을 들으며 이상호 후보는 “청년수당, 주거지원 정책 등에 대해 일부 보수 언론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히 들어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기나긴 고통의 역사를 끊어주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절감했다.” 며,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청년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고 고민하겠다.” 고 화답했다.

이어 박영선 후보는 청년들이 겪는 다층적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자산이나 생애 사회적 진출권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고립 청년이나 취약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정책관 도입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해나감에 있어, 청년들이 연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화답했다. 또한, “21분 도시 서울은 궁극적인 목표가 탄소제로로 가는 서울의 큰 걸음인 만큼 청년들과 함께 마음껏 숨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1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참석하여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서울 선거기획단 상임부단장 김영배 의원은 청년 당사자와 후보가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가 매우 귀중하다며,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삶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보다 주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겠다.” 고 밝혔다.

또한,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서울 선거기획단 정책분과장 천준호 의원은 “서울 시장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 정책적 필요들이 잘 전달이 되고 집행·평가되는데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거버넌스를 이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며,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시장 후보에게도 잘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성민 최고위원은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당신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청년세대부터 계속해서 쌓아나가야만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대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이라며, “당 내 청년정책을 위한 여러 가지 창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화답했다.

/끝/

【붙임】 간담회 사진자료

